2006년 12월 26일 발행 통권 제92호

退溪學釜山研究院報

www.toegyehbs.or.kr / E-mail : toegyehbs@korea.com

92

발행인 : 李圭衡 / 편집인:金尙勳 / 발행처:社團法人 退溪學釜山研究院 釜山市 釜山鎭區 田浦洞608-1 ☎819-8587/FAX.817-4013

第19回 韓·日·中 退溪學 國際學術大會 盛了

第19回 韓·日·中 退溪學 國際學術大會가 지난 10月 18日 釜山日報社 大講堂에서 內外貴賓 200餘人이 參席한 가운데 盛大히 擧行되었다.

金奉建 敎授(本院 常任硏究委員)의 사회로 시작된 開會式 행사에서는 金尙勳 院長의 開會辭에 이어 李圭衡 理事長의 祝辭와 日本 九州 退溪學會 疋田啓佑 會長의 人事가 있었다.

이날의 學術發表는 李源鈞 副院長이 座長으로서 進行을 맡았는데, 韓國側에서 2篇, 日本側에서 2篇, 中國側에서 1篇 등 총 5篇의 論文이 發表되었고, 講評은 李源鈞 博士(부경대명예교수)가 맡아서 總評 形式으로 마무리 하였다.

이날의 學術發表者와 論題는 다음과 같다.(發表順)

1. 西洋人修道士と儒敎思想
   柴田 篤(日本, 九州大 大學院 敎授)
2. 寒洲 李震相이 受用한 退溪의 性理說
   李相夏(韓國, 朝鮮大學校 敎授)
3. 李退溪の四端七情論について
   全學哲(中國, 九州大 大學院 博士課程)
4. 退溪와 日本 儒學
   張源哲 (韓國, 慶尙大學校 敎授)
5. 李退溪によって結ばれた
   岡田武彦先生と金景熙会長の友誼
   難波征男(日本, 福岡女學院大學 敎授)

≫ 차례

退溪學 國際學術大會 參觀記 …… (2p)
退溪先生 言行錄 · 退溪 門人錄 …… (3p)
西部慶南의 先蹟을 찾아서 …… 曺柄煥 (5p)
退溪선생과 默齋 朴士熹 …… 朴永鎭 (7p)
成仁錄을 읽고서 …… 鄭瀚永 (9p)
기제 윤행(忌祭輪行) …… 鄭景柱 (10p)
漢文文法 …… 趙柄悟 (11p)
硏究院 消息 …… (12p)
「特輯」前院長 故 湯民 柳鐸一 博士 逝去 …… (16p)
湯民 先生의 履歷 …… (17p)
弔辭 …… 金尙勳 (19p)
輓詞(挽湯民全州柳公) …… 李圭衡 外 (21p)

「崇德而廣業」의 구체적 실현

– 退溪學 國際學術大會 參觀記 –

2006년 10월 18일 부산일보사 대강당에서 퇴계학부산연구원과 구주퇴계학연구회가 공동주최하고 부산광역시 후원으로 퇴계학부산연구원 개원 24주년을 맞이하여 제 19회 한·일·중 퇴계학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다.

퇴계학부산연구원 김상훈 원장의 개회사와 퇴계학부산연구원 이규형 이사장의 축사, 구주퇴계학연구회 疋田啓佑 회장의 인사말씀이 끝나고 이어 학술발표가 있었다.

〈이규형 이사장의 축사 장면〉

학술발표는 큐슈대학 대학원 인문과학연구원 柴田篤 교수의 《西洋人修道士와 儒教思想》, 조선대학교 이상하 교수의 《寒洲 李震相이 受用한 退溪의 性理說》, 전학철의 《退溪의 四端七情論에 관하여》, 경상대학교 장원철 교수의 《退溪와 日本 儒學》, 福岡女學院大學人文學部 難波征男 教授의 《李退溪에 의해 맺어진 岡田武彦 先生과 金景熙 회장의 友誼》가 있었다.

그날 특히 논문 중에 마음이 아픈 가운데도 가슴 따뜻하고 귀감이 되는 발표문이 있었다. 그것은 福岡女學院大學 人文學部 難波征男 教授의 글이었다.

1987년 당시 김경희 퇴계학부산연구원 이사장은 福田殖 구주대학 교수의 연구실을 방문해 퇴계학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공동연구를 제안함으로써 국제학술회의가 막을 올린 것이다. 제 1회는 이동영 부산대학교 교수, 유명종 동아대학교 교수, 岡田武彦 선생과 難波征男 등 네 분이 발표했다. 그 후 매년 부산과 일본의 퇴계학 연고지를 회의장으로 해서 회의가 개최되고, 제6회 이후는 주자학의 발상지인 중국에서도 퇴계학 연구자가 참가해 3개국 공동연구로까지 발전했다.

하늘의 道가 본래 固有하고 있던, 德과 業의 작용은 「盛德而大業」이다. 사람은 이 「盛德而大業」을 天命으로서 부여받았기 때문에, 현실세계 속에서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이상과 현실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고, 사람의 道는 하늘의 성덕을 숭경하고, 대업을 실현하기 위해 사업을 펼치려고 애쓰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의 道」 곧 「崇德而廣業」이다. 다시 말하면 岡田선생의 학문과 김경희 회장의 사업은 이 「崇德而廣業」의 구체적 작업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岡田선생은 학덕을 겸비하고, 김경희 회장은 덕업을 겸비해서 인생을 걸었던 지도자였다.

김회장의 사업은 공간적으로는 국경을 넘어서며 또한 차세대 교류의 인재 육성으로는 시간을 넘어서 전개되고 있다. 김경희 회장의 넓이를 추구하는 사업과 岡田선생의 깊이를 추구했던 학문은 21세기의 동아시아 화해와 평화를 인도하는 나침반이 될 것이다.

이런 인연으로 일균을 비롯한 고김회장의 다섯 아들이 참석하여, 한 일 중의 친선교류를 위한 만찬의 자리까지 함께하여 흐뭇하였다. 앞으로도 자제 분들의 한결같은 관심으로 퇴계학부산연구원의 발전에 거름이 되리라 기대해본다.

柳 昌 熙 記(本報 編輯委員)

退溪先生 言行錄

●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사대부가 교제할 때 서로 왕래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징사(徵士 : 학력이 높은 선비로 나라에 천거된 사람)같은 사람은 이 예의를 차릴 수 없다. 중국의 오여필(吳與弼 : 호 康齋)은 처사(處士)로서 불리어 서울에서 살았는데, 사대부들이 찾아오면 반드시 찾아가서 답례를 하였다. 하의려(賀醫閭 : 이름은 欽)는 이것을 매우 그르다고 할 것이다.」(우성전의 기록)

嘗言士大夫相與之際 一往一來 乃禮之當然也. 但如徵士等人 不可行此禮. 中朝吳與弼(號,康齋) 以處士 召在都下 凡於士大夫之來 無不往答 賀醫閭(名,欽) 深以爲非. (禹性傳)

손님의 밥상은 반드시 집에 있는 대로 차렸고, 귀한 손님이라 하여 성찬을 차리지도 아니하였거니와 계급이 낮고 나이가 어리다고 하여 소홀히 하지도 않았다. (김성일의 기록)

對客設食 必稱家有無 雖貴客至 亦不盛饌 雖卑幼亦不忽焉. (金誠一)

손님이 오면, 반드시 술과 밥을 내어오는데 반드시 집안사람에게 미리 알렸고 한번도 손님 앞에서는 말하지 아니하였다. (김성일의 기록)

來客 常有酒食 必豫敎家人以供具之 未嘗對客言之. (金誠一)

제자를 대하기를 붕우(朋友)같이 하였다. 비록 젊은 사람일지라도 이름을 버리고 '너' 라고 하지 않았다. 제자들을 맞이할 때는 예의를 지켜 공경을 다하였고, 자리에 앉으면 반드시 그 부형의 안부를 먼저 물었다. (김성일의 기록)

待門弟子 如待朋友 雖少者亦未嘗斥名稱汝. 送迎周旋揖遜 致其敬, 坐定 必先問父兄安否. (金誠一)

벗이 죽으면 아무리 멀어도 제문을 지어 자제를 보내어 제사를 드리게 하였다. (김성일의 기록)

朋友死 雖遠 必遣子弟賫文 致祭. (金誠一)

덕홍이 묻기를, "손님이 찾아오면 노소귀천을 가릴 것 없이 모두 공경해야 합니까?"하니 선생이 답하기를, "마땅히 공경해야 한다. 다만 대하는 데는 길수(道)가 있다. 주자의 거만과 게으름을 논한 글 「敖惰之說」에 「거만이 흉한 덕이 되는 것은 바로 거만한 마음을 먼저 지니고서 때와 곳을 가림이 없이 누구에게나 거만하게 대하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거만하게 될 만해서 거만하다면, 이는 사람의 상정(常情)으로 그럴 수 있는 것이고 또 사리상 당연하다. 이제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있어 친하려고 하여도 친할 수 없고, 그 지위와 인품이 외경(畏敬)할래야 할 수 없으며, 그가 궁하여도 불쌍하지 않고, 악하여도 천함에 이르지 않고, 그의 말이 취하거나 버릴 것도 없고, 그의 행실이 옳다거나 그르다고 할 만한 것이 없다면, 그를 보기를 지나가는 사람처럼 범연히 할 뿐이다.」 하였다. 「이로써 보건데, 대개 사람을 대하는 길수는 각기 그 사람 자신이 어떠하냐에 달렸으니, 어떻게 노소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두 공경할 수 있겠는가. 다만 미리부터 제멋대로 지레짐작하는 것은 옳지 않다. 황효공(黃孝恭 : 1496~1553 자는 敬甫 호는 龜岩)은 비록 지위가 낮거나 어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대문에서 맞이하고 보냈다고 하니 그것은 또한 지나친 일이다.」 하였다. (이덕홍의 기록)

德弘 問曰 客有來見 則不論老少貴賤 而皆當敬之否 曰亦當敬矣. 但待之有道. 朱子論敖惰之說 曰 敖之爲凶德也 正以其先有是心 不度所施 而無所不敖爾 若因人之可敖而敖之 則是常情所宜有 而事理之當然也. 今有人焉 其親且舊 未至於可親而愛也, 其位與德 未至於可畏而敬也, 其窮 未之於可哀, 而其惡 未至於可賤也. 其言無足去取 而其行無足是非也 則視

之泛然如塗之人而已爾. 以此觀之 凡待人之道 各在當人之身 豈可不論老少貴賤 而一切敬之乎 但先有忽慢之心 亦不可也 黃公孝恭 雖卑幼之人 必出大門外迎送 恐亦過矣. (李德弘)

녹사(錄事, 의정부에 딸린 아전) 양성의(梁成義)란 사람이 예안현감이 되었다, 선비들은 그 사람됨을 천하게 여겼지만, 선생은 그를 백성의 주인이라는 예의를 다하였고 갈수록 더욱 공경하였다. 양성의(梁成義)는 도리어 성주(成主)의 높음만 믿고 방자하였다. 한번은 그가 어량(漁梁)에 와서 심부름꾼을 시켜 선생을 초청하였는데, 그 말이 매우 거만하였다. 선생은 병 때문에 사양하고 자제를 시켜 가보라 하였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모두 괘씸하다고 하였으나 선생은 끝내 그의 잘못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였다. (김성일의 기록)

有錄事梁成義者 爲本縣縣監 士人皆賤其爲人 先生盡其民主之禮 久而愈敬. 成義反挾地主之尊 嘗到漁梁 伻邀先生辭甚倨傲 先生辭以疾令子弟往見. 聞者皆怪怒 而先生終不言其失.(金誠一)

退溪 門人錄

漫浪 李寯

公의 자는 魯卿이고, 호는 漫浪이며 본관이 眞城이니 松安君의 후손이요 대사헌을 지낸 貞愍公 溫溪선생의 아들이다.

中宗21년 丁亥(1527년) 陶山 溫溪里에서 출생한 漫浪은 어릴 적부터 叔父인 退溪선생 門下에 드나들면서 薰陶를 받아 司馬試에 합격하여 進士가 되었으며 만년에 學行으로 천거되어 縣監을 역임하였다.

성품이 진실하고 순박하면서도 內直外和하여 주위 사람들의 찬사를 받았고 특히 선생의 총애를 받게 되니 訓學을 받을 때 「장차 德이 있는 人物이 될 것이다.」고 칭찬을 받았으며 先生 易簀하기 직전 여러 子姪중에서 公에게 命하여 禮葬을 사양할 것과 油密果를 쓰지 말 것, 碑石을 세우지 말되 조그마한 돌에 간략하게 새길 것, 先代의 墓碣을 새겨 세울 것 등을 중요 내용으로 하는 遺戒를 쓰게 할 정도로 신임을 받았다.

이처럼 집안과 주위의 期待와 信望을 받았던 公이 晩年에 學行으로 천거되어 현감을 역임한 후 宣祖21년(1588년) 향년 62세로 서거하니 大提學과 領議政을 역임한 名儒 白沙 李恒福이 撰한 墓碣銘에서 「傳德襲訓 有家進之敎」라 學德을 찬양하였다.

東岡 南彦經

조선 宣祖 때의 文臣인 남언경의 자는 時甫이고 호는 東岡 또는 靜齋이며 본관이 宜寧이니 永興府使를 지낸 南致勛의 아들이다.

中宗 22년(1528년)에 출생하여 일찍이 花潭 徐敬德의 門下에서 수학하다가 청년시절부터 멀리 陶山으로 내려가 퇴계선생 문하에서 심오한 학문을 배워 학문이 뛰어났던 東岡은 특히 經學에 능하였으며, 官職에 뜻을 두지 않아 과거에 응하지 않았으나 39세 때인 明宗 21년(1566년) 韓修 등과 함께 學行으로 吏曹에 천거되어 參奉이 되고 뒤이어 弘文館 正字와 修撰, 持平, 縣監, 吏曹佐郎을 거쳐서 司憲府 持平과 承政院 承旨에 오른 다음 晩年에는 從二品인 全州府尹을 역임하였다.

楊州牧使로 재임중일 때에는 文正公 趙靜庵 선생을 추앙하여 楊州에 道峯書院을 창건하였던 東岡은 官職에서 물러난 후 楊根고을 靈川洞에 돌아와 학문에 열중하였다.

일찍이 아우 南彦紀와 함께 서울에서 陶山의 退溪선생 門下에 찾아들어 수학하였던 東岡은 사후 趙靜庵선생을 봉양한 양근의 迷源書院에 배향되었다.

傳統의 계승과 孝의 실천

- 西部慶南의 先蹟을 찾아서 -

曺 柄 煥
(本院 運營委員)

2006年 9月21日 退溪學釜山硏究院 任員陣 合同硏修에 參加한 一行 31人은 觀光버스에 몸을 실어 午前 8時에 赤十字會館 앞에서 出發하였다.

金海平野가 視野에 스치면서 五穀百果가 무르익어가는 仲秋佳節이라 오늘 先賢遺蹟地 巡禮의 氣分은 더 없이 상쾌하다.

버스가 고속도로로 접어들자 李圭衡 理事長과 金尙勳 院長의 人事가 있었고 이어서 참석한 일행에 대한 간단한 紹介가 있었다.

〈培山書堂에서의 參拜모습〉

車窓 밖으로 黃金들판과 初秋의 山과 들을 鑑賞하던 1時間餘後에 차는 어느덧 南江休憩所에 到着한다. 案內放送은 10분간 休息이니 빨리 乘車하라고 하였으나 급한 일을 마치고 커피도 마시는 등 짧은 談笑도 즐거웠다. 目的地 山淸에 到着해 鶴陰 李 燮 副院長의 友人인 商山人 金布煥씨의 안내로 慶南文化財 51號인 培山書堂으로 향했다. 서당입구의 道路邊에는 大形의 碑石이 있어 본원 舍廊房 座長이신 李炳壽선생의 說明에 따르면 木棉씨를 들여온 文益漸선생의 紀念館이 至近거리에 있다는 것과 저 비석은 文선생의 丈人 退軒 鄭天益선생의 비석인데 그 내용은 木棉種子를 들여 온 것은 文선생이지만 이 나라에 널리 傳播 보급한 분은 鄭天益선생으로 그 분에 대한 功績碑라고 한다.

培山書堂에는 陜川李氏 李炳能 都有司의 案內를 받아 안으로 들어갔다. 祠堂은 文廟와 道東祠로 나누어져 있고, 文廟에는 전국 어느 書院에서도 볼 수 없는 「孔子至聖先師神位」라고 하여 影幀을 모셔 놓은 게 餘他 서원과의 차이점이었다. 또한 培山書堂의 懸板도 中國의 康有爲선생이 써 준 것이라고 한다.

文廟 밑의 道東祠에는 朝鮮朝 中期 性理學의 巨木이신 退溪 李滉, 南冥 曺植 兩 先生의 位牌를 모셨고, 兩 先生과 함께 共遊한 四同之交(友) (同庚 同德 同道 同心)인 淸香堂 李源先生을 配享하고 있었다. 청향당은 科擧와 벼슬을 마다하고 平生을 學問硏究와 後進養成에 이바지한 훌륭한 학자였다. 또한 청향당의 姪인 竹閣 李光友선생의 위패도 함께 배향되어 있다. 이규형 이사장의 焚香과 함께 참가자 전원이 參拜하였다. 이어서 이병능 도유사의 안내로 강당에서 잠간 휴식을 취하면서 준비해간 幣帛을 전달하고 배

산서당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듣고 난 후 時到箋을 기록하여 전하고 나오면서 들어갈 때 유심히 보았던 서당입구에 「復元儒敎之本山」이라는 입간판이 있어 培山書堂을 다시 보고, 또 보았다.

다음으로 남사마을의 尼東書堂(경남문화재 196호)으로 들어가는 길목 左側에는 옛날 富家들과 선비 고장의 證票가 되는 傳統韓屋(골기와 집)들이 많이 보였다. 尼東書堂에 도착하니 입구에는 政府의 補助로 補修工事가 한창이었으며, 正堂으로 들어가니 右側(正堂 左側)에 우뚝 솟은 碑石에는 俛宇 郭鍾錫이라는 대형 글귀가 선뜻 한 눈에 들어와 生時 俛宇선생께서 後進養成에 魂이 담겨 있음을 익히 알 수 있었다.

이 마을의 星州人 이기상씨의 안내로 正堂의 마루에서 상호 인사를 교환하고 俛宇선생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서 우리 일행은 다음 행선지인 麗澤堂으로 향했다.

金布煥씨의 안내로 性齋 許傳先生 假影緇幀을 뫼셔 놓은 祠堂에 일행이 함께 拜謁하였다. 여기도 政府補助로 補修工事가 進行中이었다.

性齋 許傳先生은 各種文獻과 記錄이 말하듯 39歲에 別試 文科에 及第하여 벼슬길에 올라 老軀인 88歲까지 弘文館 大提學 등을 끝으로 長壽하신 훌륭한 분이였다. 준비해간 폐백을 전하였다.

이어서 午料가 준비된 商山金氏 世居마을에 도착 500餘年 된 銀杏木 아래 일행은 旅裝을 풀고 이 마을에서 준비한 補陽食으로 점심식사를 하니, 곁들인 "千年約束" 술 한잔에 흥취는 더해갔다. 식후 잠시 休息을 취하고 나서 仁智齋로 향했다. 商山金氏의 入鄕을 요약하면 1392年 丹邱齋 金後先生께서 世居하여 600餘年間 많은 선비와 名士를 輩出한 산청골의 名門으로 알려져 있다. 250여년의 역사를 가진 仁智齋는 수많은 선비를 배출한 書堂으로 한때는 3,000~5,000卷의 藏書가 보관되었던 學問의 場이었다 한다. 李圭衡 理事長은 준비해간 金一封을 전했다. 一行은 法勿里를 뒤로하고 晋州市 大谷面 丹牧里로 향했다. 가는 도중에 金尙勳 院長과 李相熙 理事는 급한 사정으로 진주에서 하차하게 되었는데 金院長이 읊은 시조 「父子像」은 진한 感動을 남겼다.

晋陽河氏 世居마을에 도착하니 연못에 우뚝 솟은 碑의 威容은 名門 晋陽河氏의 象徵性으로 눈에 들어온다. 晋陽河氏 始祖公 拱辰의 位牌를 모셔 놓은 啓源祠에 일행은 함께 拜謁하고 入鄕祖 起龍의 六世孫인 丹池公 悏의 宗宅으로 향했다. 宗宅에는 悏의 13대 宗孫인 河舜鳳 前 國會議員이 우리 일행을 반갑게 맞아 주었다.

入鄕 및 丹牧의 由來에 대하여 河舜鳳 宗孫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참된 傳統의 계승과 孝의 실천을 귀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接賓의 禮를 갖춘 酒果로 따뜻한 대접을 받았다.

시간이 흘러서 어느덧 日沒 무렵이라 서둘러서 마지막 행선지인 泗川으로 향했다. 사천 龜巖書院(경남문화재 자료 제40호)으로 가는 도중 本院 金兌桓 運營委員長으로부터 龜巖書院에 대한 안내가 있었다. 현지에 도착하니 서원의 오필근 회장이 나와 있었다. 吳 회장의 안내로 龜巖 李楨, 醒翁 金德誠先生의 位牌를 모시고 春秋로 享祀를 奉行한다는 설명이 있었고 일행은 다함께 참배하였다.

龜巖 李楨(泗川 李氏)선생은 1536년 別試 文科에 壯元으로 벼슬길에 올라 1568년 56세까지 治定을 하였으며 이후 弘文館 副提學에 임명되었으나 赴任하지 않고 龜巖精舍를 지어 後進養成에 헌신하신 분으로 現代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龜鑑이 되는 훌륭한 분임을 알았다. 준비해 간 幣帛을 전달하고 一源齋로 자리를 옮겨 公式日程을 마무리하는 任員會議를 가졌다.

아침 8시에 出發하여 終日 强行軍 巡禮를 마치고 歸路에 진성면의 칡冷麵집에서 맛있는 저녁식사를 하고 나니 시간은 흘러서 밤 8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노곤한 몸을 실은 버스는 1시간여만에 부산에 도착하고 李圭衡 理事長의 마무리 인사로 하루의 막을 내렸다. 뜻있고 고마운 巡禮요 硏修였다.

退溪선생과 默齋 朴士熹

- 太平老夫 聖世逸民 -

朴 永 鎭
(본보 편집위원)

묵재(默齋) 박사희(朴士熹:1508-1588)와 퇴계(退溪)선생의 첫 만남은 무술(戊戌:1538)년 어느 봄날이었다. 당시 퇴계는 어머니 춘천박씨(春川朴氏)의 내간상(內艱喪)을 당하여 거상(居喪) 중이었는데 상차(喪次)에 찾아든 묵재를 보고 그의 단아하고 묵묵한 자태에 38세의 퇴계(退溪)와 31세의 묵재는 평생의 도반(道伴)임을 서로 알아차렸다.

당시 묵재는 경상도 다인현(多仁縣) 반룡촌(蟠龍村)에 살며 예안현 서면(西面)의 가야촌(佳野村, 일명 西村)에 세거하던 초계변씨(草溪卞氏)인 변효창(卞孝昌)의 무남독녀에게 장가들어 처향(妻鄕)에 자주 출입(出入)하였는데, 처가(妻家)는 안동부사와 대사간을 역임한 가헌(稼軒) 변계손(卞季孫 : 1368-1432)의 집안이었다. 그래서 처향에 오면 直長 柳遇春(豊山人), 主簿 尹寬(德山人), 進士 李完(眞城人), 進士 金生溟(安東人) 등 종동서(從同壻)들이 주야로 학문과 덕행을 닦았고 이들은 뒷날 서촌칠현(西村七賢)으로 불렸다. 더욱이 멀지 않는 도산(陶山)에 퇴계선생이 계시며 월천(月川) 조목(趙穆), 후조당(後彫堂) 김부필(金富弼), 권옹(倦翁) 류빈(柳贇) 등 많은 학자들이 골골이 있어서 예안 땅으로 거처지를 옮길 것을 결심한다.

이후 가야촌으로 이거한 묵재는 암서헌(巖栖軒)에서 퇴계선생을 뵙고 몇 차례의 사양 끝에 종유(從遊)를 허락(許諾)받아 아침저녁으로 왕래하며 친히 선생의 훈계를 받고 질정(質正)하였다. 또 임술(1562)년에 자신의 강학처이자 잠심처인 격양정(擊壤亭)을 낙성하자, 퇴계선생은 손수 격양정의 편액을 써 주었고 이후 퇴계도 틈이 나면 이 곳을 찾아 들었고 뜰에 핀 매화와 대나무[梅筠]를 너무 사랑하여 시를 남기기도 하였다.

또 퇴계선생이 묵재에 대한 권면(勸勉)은 병백당(病栢堂) 박운(朴澐:1535-1595)이 지은 「墓誌」에 잘 나타나 있다. "묵재선생이 침묵(沈默)한 까닭에 '한가롭게 노닐며 싫도록 먹고, 깊이 가라앉아 묵묵히 생각한다.[優游厭飫 沈潛默識]' 라는 여덟 글자를 주면서 허여(許與)하셨다. 그리고 그 재실에 편액하여 '묵재(默齋)' 라고 명명하시니 드디어 호를 '묵재(默齋)'라고 고치셨다."라고 했다. 이는 제자로서 홍복인 '선생사호(先生賜號)'였다.

더욱이 퇴계선생이 병인(丙寅:1566)년 1월 26일에 왕명(王命)을 받아 상경할 때에 서촌 부근에 있는 성천사(聖泉寺)에 나가 유숙하니 묵재(默齋, 자는 德明)와 눌재(訥齋) 김생명(金生溟, 자는 士浩)은 전별의 자리를 마련하였고 이 때 전별시를 지었다. 그러자 퇴계선생은 이들의 운자(韻字)를 빌려서 시 2마리[首]를 지었고 그 시가 『퇴계선생속집(退溪先生續集』 2권에 「丙寅正月二十六日 赴召 出宿聖泉寺 次二友金士浩朴德明韻」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는데 1 마리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사십년 사귄 세월 한 순간처럼 회상하며
거듭 절간을 찾아 옛 회포를 펼쳤네.
그대의 시구(詩句)에 경책(警策)하는 뜻이 있음을 알았고
매화와 대나무는 내가 오기만을 기다렸다고 말하네!
四十年遊一瞬回　重尋佛刹舊懷開.
知君警策存詩句　說着梅筠待我來.

그리고 시를 지은 말미(末尾)에 작은 글을 지어 덧붙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요성산(堯聖山) 아래의 가야촌(佳野村)은 곧 박덕

명(朴德明)군이 깃들어 쉬는 곳인데 그 정자를 이름하여 '격양정(擊壤亭)'이라 부르니 요(堯)임금 시절의 노인들이 격양가(擊壤歌:태평가)를 부르던 뜻을 취한 것이다. 한가롭게 노닐며 실컷 먹고, 정신을 온화하게 하여 심성(心性)을 수양하니, 태평 시절의 늙은이요 성인 세상의 편안한 백성 같다. 내가 일찍이 이 정자에 왕래할 때 난간 앞에 매화와 대나무가 있는 까닭으로 '매균(梅筠)은 내가 오기만을 기다렸다고 말하네.'라고 적는다. [堯聖山下 佳野村 卽朴君德明 棲息之所 而名其亭 曰 擊壤 取堯時老人 擊壤之義也. 優遊厭飫 怡神養性 太平老夫 聖世逸民. 予嘗往來於斯亭 檻前有梅筠 故曰 說着梅筠待我來云.]"

이 창수(唱酬)한 시를 통해보면 당시 퇴계선생과 묵재는 사제(師弟)간을 뛰어 넘는 매우 돈독한 사이였음을 알 수 있다. 66세의 퇴계는 같은 향리에서 평생을 함께한 59세의 묵재와 63세의 눌재를 두 벗(二友)이라 지칭하며 여가가 나면 격양정을 찾아 우의(友誼)를 다졌고 이러한 빈번한 교유를 통해 허여(許與)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더욱이 시의 말미에 '태평노부(太平老夫), 성세일민(聖世逸民)' 등의 문자는 묵재와 퇴계선생 모두 전원에 묻혀 살며 서로의 처지를 애틋한 심정으로 표현한 것이었다.

같은 향리에서 평생을 함께한 이들에게도 이별의 순간은 어김없이 찾아 들었다. 퇴계선생의 부고를 받고 신미(辛未:1571)년 정월 초6일에 김생명과 함께 퇴계선생의 상차를 찾아 그간의 회포를 기나긴 제문을 드리며 이별을 고하였다. 칠순을 바라보는 흰머리의 두 도반이 뺨에 흐르는 눈물과 호곡(號哭)으로 기정(記情 : 致奠을 안동에서는 기정이라 한다.)드리는 모습은 바라보는 상제(喪弟)들과 문인(門人)들을 더욱 가슴 아리고 숙연하게 만들었다.

『默齋先生逸稿』에 실린 「祭退溪先生文」에는

"일찍이 문하(門下)에서 이끌어 주시고 권장하시며 망년지우(忘年之友)로써 허교(許交)를 하시니 외람스럽게도 선생을 모시고 야산(野山)의 절 방에서 따르지 않음이 없었고 사시사철 학문을 닦으며 조용히 강론하고 읽다가 앵무새가 푸른 버들가지에서 지져기고 꽃이 봄 동산에 활짝 피면 술병을 잡아들고 어른과 아이들을 이끌고 시냇가에서 물고기를 낚으며 고갯마루에 올라 꽃을 꺾고 술잔 들어 서로 마시며 시구 절을 얻어 서로 읊조렸습니다." [夙於門下 誘掖勸奬 許以忘年 叨陪函丈 野寺山房 無往不逐 四時藏修 從容講讀 鶯啼綠柳 花發春山 提挈壺榼 携引童冠 臨溪獵魚 登嶺採花 擧盃互飮 得句相唫.]

'지금 이후로 고을에 선생이 계셔서 백년토록 모시고 담화하며 함께 장차 남은 생애를 마치려 했습니다.' [而今而後 鄕有先生 百年陪話 竝將終齡.]

'오호라! 슬프다. 어찌 처참하다 아니 하리오? 평소의 별서(別墅:별장)는 빈소(殯所)로 변하였으니 내 품속의 상심(傷心)은 하늘과 땅만이 알 것입니다. 띠 집을 에워싸서 세 번이나 돈들, 애통함이 어찌 끝이 있으리까!' [嗚乎已矣 曷不悽愴 平日別墅 變作殯幕 余懷之傷 天地之識 繞廬三匝 爲慟何極.] 라고 쓰여 있다.

〈마곡서당 전경〉

한편, 묵재의 도학자와 문학가의 기질은 그가 지은 문학작품과 저술 속에 그대로 드러난다. 그는 임천(林泉)에 머물며 비록 임금의 은총은 받지 못하였고 세상이 알아주는 명리(名利)도 없었지만, 따뜻한 봄볕의 고마움과 전원의 한가롭고 편안한 삶조차도 임금의 덕화(德化)로 돌렸고 저술 속에도 인간의 감정을 그대로 표출한 무색·무취의 담백한 청량수 같은 결정체가 소담하고 깔끔하게 자기의 심성을 한껏 드러내 보인다. 「격양정팔영(擊壤亭八詠)」과 「사천육경(斜川六景)」의 시는 그가 지은 대표적 시이다. 그러나 시와는 달리 산문에는 현실 정치의 참여와 천리(天理)와 천변(天變)을 두려워해야한다는 내용의 글을 많이 지었는데 「춘추전에 "가을철에 큰 물 져서 보리와 벼싹이 없다"는 글을 읽고(讀春秋秋大水無麥苗)」와 「인재를 등용하는 대책(對用人策)」은 현실 참여적인 가치관을 잘 보여준다.

묵재는 선무랑(宣務郎) 신령훈도(新寧訓導)에 제수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고 그 뒤 예안의 마곡서원(磨谷書院)에 배향되었다.

도반(道伴)을 따라 거처를 옮겨 종유(從遊)하며 사제간의 인연을 맺으니 이들의 만남은 도존(道存)과 사존(師存)의 전형을 볼 수 있는 만남이었다.

德을 이루고 仁을 성취함

- 成仁錄을 읽고서 -

鄭 瀚 永
(本院 運營委員)

成仁이란 仁을 이루는 경우를 말하는데 孔子께서 말씀하시기를 志士와 仁人은 삶을 구하여 仁을 해침이 없고 몸을 죽여 仁을 이루는 경우는 있다 하였다.(子曰 志士仁人 無求生以害仁 有殺身以成仁) 志士란 뜻이 있는 선비요, 仁人은 德을 이룬 사람이다. 의리상 마땅히 죽어야 할 때에 삶을 구한다면 그 마음에 불안한 바가 있을 것이니 이것은 그 마음의 德을 해치는 것이다. 마땅히 죽어야 할 경우에 죽는다면 마음이 편안하고 德이 온전할 것이다. 이것은 옳음을 성취한 까닭이다.

梧陰 尹斗壽는 燕京과 開城을 來往하며 文山 文天祥과 圃隱 鄭夢周의 肖像을 각각 배알하고 景仰하는 마음에서 成仁錄을 다음과 같이 지었다.

예전에 燕京(연경 북경별칭)에 사신으로 갔다가 都城을 떠나오던 날 三忠祠에 參謁하여 文山의 초상이 늠름하여 생기가 있는 것을 보고 소스라쳐 肅然한 마음을 일으켰거니와 延陵篆을 보게 되어[1] 松都를 왕래하며 圃隱의 화상을 배알하니 景仰하는 마음은 전과 차이가 없으나 책속의 하찮은 글을 대하는 것보다 훨씬 나았다. 그래서 眞像과 親筆을 摹寫하여 한 編을 만들어 때때로 보니 아닌게 아니라 옷깃을 여미어 공경을 더하게 되는데 이 마음은 누가 그렇게 시키는 것인지 모르겠다.

대저 두 분이 세상에 나아가 일하고 돌아가신 것이 자못 서로 닮았으니 科擧 보는 자리에서 으뜸을 차지한 것이 같고 나라일이 이미 글러진 뒤에 정승이 된 것이 비슷하다. 文山은 益王이 井澳에서 죽고[2] 衛王은 바다에 빠져죽고[3], 博羅(元나라 승상)가 무릎 꿇리었으나 그의 志節은 조금도 막히지 않았으며 困辱하고 摧折하며 달콤한 말로 꾀고 높은 벼슬을 주어도 끝내 그 뜻을 빼앗지 못하고 마침내 죽었다. 圃隱은 90일 길을 50일에 갔고 이웃나라가 바야흐로 亂을 꾸미는데도 임금의 명을 받고 어려운 빛이 없었으며 天命이 돌아간 데가 있는 줄 알고도 本朝를 간절하게 생각하는 마음은 難易에 따라서 고치지 않고 나무 하나로 큰 집을 버티려다가 마침내 조용히 의리에 돌아가시되 마음에 달갑게 여기셨다. 이것은 다 수양의 순수함과 수립한 것의 탁월함이 秋霜 烈日의 빛나는 것처럼 밝고 岱宗(태산 오악의 으뜸), 喬嶽(태산을 교악이라 함)의 높은 것처럼 우뚝하여 사람들이 가까이 따를 수 없는 것이다. 文山의 말씀은 부모의 병이 어쩔 수 없게 되었더라도 약을 쓰지 않을 리가 없다 하셨고, 圃隱의 말씀은 社稷을 맡아서 어찌 두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나에게 이미 처신할 바가 있다 하셨는데 두 분의 말씀은 두 분의 마음이다.

是非, 利害, 輕重, 取捨의 구분을 알아서 극진한 데에 이르렀으므로 顚沛하고 流離할 즈음일 지라

1) 延陵篆을 보게되어 : 영능은 황해도 延安의 옛 이름. 전(篆)은 관인을 전자로 새기기 때문에 정사를 보살핀다는 뜻 즉 延安府使時라는 뜻.

2) 益王은 : 宋度宗의 庶子이다. 宋末에 福州에서 즉위하여 3年만에 元軍에게 쫓겨 배로 강동성 井澳에 이르러 배가 부서져 죽을뻔 하였고 그 뒤 占城으로 가려다 못가고 石岡州에서 죽었다.

3) 衛王 : 익왕에 이어 즉위한지 2년만에 元軍에게 쫓겨 배로 피하려 하였으나 막혀서 나갈 수 없게 되자 陸秀夫가 업고 바다에 뛰어들어 죽었다.

도 여유 있게 처신하여, 살아도 따라가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죽어도 天命처럼 편안할 수 있었으니, 스스로 바라서 오직 仁을 성취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아아/ 貞烈하시다. 아아/ 偉大하시다.

士大夫가 평소에는 임금의 祿을 먹은 것이 후하지 못할까 염려하여 '나는 나라 일을 잘 한다' 하나 조금이라도 得失이 있는 일이 닥치면 그 마음을 움직이고 그 지킬 것을 어기지 않는 자가 드무니, 이 編을 보는 자가 그 이마에 땀이 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내가 이 염려 때문에 이 편을 간행하되, 당일의 詔敎의 대략을 첫머리에 두고 諸公의 言論, 詩文을 뒤에 붙였다. 아아/시시(柴市: 북경에 있는 북성)와 善竹橋에는 천년의 碧血을 머물렀거니와, 高山景行이 어찌 후세의 표준이 되지 않겠는가.

※ 본 成仁錄에는 다음의 文獻이 편재되어 있어 그 의미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一. 송병선(宋秉璿)의 성인록 서문
二. 상흥(祥興)이 장유(奬諭: 문승상에게 권하여 타이른) 한 소략(詔略)
三. 공양왕(恭讓王)이 정충의백(鄭忠義伯)에게 장유(奬諭: 권하여 타이른) 한 교략(敎略)
四. 문산(文山) 포은(圃隱) 두 선생의 畵像(화상)과 遺墨(유묵)
五. 이숭인(李崇仁)이 달가(達可: 포은의 字)에게 준 글

고금을 널리 배우고 기품이 순수하며 바야흐로 말이 온화하여 변별력 있음(學博古今氣醇以方言溫而辨)의 글

六. 퇴계(退溪)선생이 쓴 임고서원 제문
七. 목은(牧隱)이 쓴 억(憶) 정산기(鄭散騎 : 당시 포은의 벼슬명) 시(詩)
八. 김현성(金玄成) 최석정(崔錫鼎) 손순효(孫舜孝) 권벌(權橃)등이 쓴 장충편(奬忠編)

問 辨

* 예법을 비롯한 유학전반에 걸쳐 궁금한 사항을 묻고 답하는 난을 시작합니다.
愛讀者 諸位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며 審問-明辯이 되기를 바랍니다. -편집자-

■ 제사를 돌아가며 모시는 것은 어떻습니까?(금정구 구서동 金아무개)

기제(忌祭) 윤행(輪行)

예법에 돌아가신 분에 대한 추모의 행사로서 가정의 제사(祭祀)는 시제(時祭)를 중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의 예법을 지키는 집안에서는 기일(忌日) 제사를 중시합니다.

주자(朱子)는 말하기를 "옛날에는 기제(忌祭)가 없었는데, 근래에 와서 여러 선생이 이 부분을 고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전기 이전부터 세속에서 기제(忌祭)와 묘제(墓祭)를 자손들이 돌아가면서 지내는 것이 하나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퇴계(退溪) 선생은 말하기를 "기일과 묘제는 돌아가며 행하여도 의리에 크게 해될 것이 없을 듯하다"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 "종자(宗子)가 가난하여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된다면 도리어 시속 따라 돌아가면서 행하는 것이 나을 듯하다"고 하였습니다. 퇴계선생의 설에 의하면 종법(宗法)에 따라 신주를 모신 종자의 집에서 기제를 지내는 것이 타당하나, 사정이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지자(支子) 집에서 지방을 붙여 놓고 행사하는 것도 가하며, 묘소에 가까운 재실에서 행사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친정 부모의 제사를 모실 자손이 없을 경우 시집간 딸 자식이 남편 집에 있으면서 별실에서 친기(親忌)의 제사를 모시는 것도 예의 정식은 아니나 또한 허용될 수 있습니다.

鄭景柱(文學博士, 慶星大 敎授)

〈연재3〉

漢文文法(Ⅱ-1)

-'而'의 用法에 대하여-

趙 柄 悟
(본보 편집위원)

※ 지난 호에는 '爲'의 用法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이번 호는 '지면 관계로 而'의 用法에 대한 일부만을 소개하고 남은 부분은 다음 호에 연재하기로 한다.

1) 접속사: 순접과 역접의 2가지 종류가 있음.

㉠ 순접:

美而艶 [左傳, 桓公 元年] (아름답고도 곱다)

子溫而厲 威而不猛 恭而安 [論語, 述而] (선생님께서는 온화하면서도 엄숙하시고 위엄이 있으면서도 사납지 않으시며 공손하면서도 (마음이) 편안하셨다)

不若投諸江而忘之 [新增東國輿地勝覽] (강에 그것을 던져서 잊는 것만 못하다)

溫故而知新 可以爲師矣 [論語, 爲政] (옛것을 익혀서 새로운 것을 알면 스승이 될 수 있다)

㉡ 역접:

敏於事而愼於言 [論語, 學而] (일을 할 적에는 민첩하게 해야 하나 말을 할 적에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

然今之詩 異於古之詩 可詠而不可歌也 [李滉, 陶山十二曲跋] (그러나 지금의 시는 옛날의 시와 달라서 읊을 수는 있지만 노래할 수는 없다)

2) 대명사(汝=女=爾=若=乃)

而誰以易之 [論語, 微子] (너는 누구와 그것(세상)을 바꾸려 하는가?) *以는 ' ~와 더불어'로 쓰이며 동반의 의미를 지님.

夫差 而忘越人之殺而父耶 (부차야! 너는 월나라 사람이 네 아버지를 죽인 것을 잊었느냐?)

若能入而國武庫 割破鼓角 則我以禮迎 [三國史記] (만약 능히 당신 나라의 무기창고에 들어가서 자명고를 찢고 뿔피리를 깨뜨린다면 내가 예로써 맞이하겠소)

余知而無罪也 (나는 너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안다)

3) 부사성접미사 : ~이어서, ~하여서

㉠ (시간)명사+而(부사성접미사)

朝而往 暮而歸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돌아온다)-시간명사+而(부사성접미사)

仲尼之徒 今西面而事之 (중니의 무리들은 지금 서쪽을 향해서 그들을 섬긴다)-명사+而(부사성접미사)

* 그 외 '而'가 시간명사 뒤에 놓여 접미사로 쓰이는 관용구: 俄而=已而=旣而=尋而(얼마 안되어, 오래지 않아)

㉡ 수사+而(부사성접미사)

吾十有五而志于學 [論語, 學而] (나는 열다섯 살에 학문에 뜻을 두었다)

㉢ 동사+而(부사성접미사)

河曲智叟笑而止之 [列子, 湯問] (하곡의 지혜로운 늙은이가 웃으면서 그를 말렸다)

觀水戲雜技 至晡而罷 入御長樂殿 [高麗史 世家] (물놀이와 잡기를 관람하다가 저녁때에 이르러 그만두고 장락전으로 들어갔다.)

㉣ 부사+而(부사성접미사)

使其君子不幸而不得聞大道之要 [大學] (그 당시의 군자로 하여금 불행히도 큰 도의 요체를 듣을 수 없게 하다)

子路率爾而對 [論語, 先進] (자로(子路)는 경솔하게 대답했다)

漁父莞爾而笑 鼓枻而去 [屈原, 漁父辭] (어부가 빙그레 웃으며 노를 두드리며 가다)

* 위의 문장과 이 문장은 '率爾'나 '莞爾'라는 부사 뒤에 부사성 접미사인 '而'가 붙은 형태임.
* 그 외 '而'가 시간부사 뒤에 놓여 접미사로 쓰이는 관용구: 始而(비로소), 久而(오랫동안). 繼而(이어서), 今而(이제)

4) 假定, 條件: (만약) ~하면

告諸往而知來者 [論語., 學而] (지나간 일을 말해주면 올 것을 아는구나)

上下交征利 而國危矣 ((만약) 상하가 서로 이익을 다투게 되면 나라가 위태롭다)

– 研究院 消息 –

▷ 合同研修會 開催

任員・運營委員 合同研修會가 지난 9月 21日 경남 山淸 지역과 晋州, 泗川 等地의 先蹟地를 돌아보는 순서로 마련되었다.

任員과 運營委員 등 31人이 參席한 이번 행사에서는 경남 산청군 단성면 사월리 培山書堂과 남사마을의 尼東書堂 신등면 평지리 法勿마을의 商山金氏 世居村과 麗澤堂, 仁智齋 그리고 晋州市 大谷面 丹牧里 晋陽 河氏 600年 世居地와 泗川의 龜溪書院 등을 尋訪하였다.

▷ 傳統文化講座 終講

2006년도 傳統文化敎養講座가 지난 12月 1日 李圭衡 理事長의 「退溪와 周邊人物」이라는 講演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금년도 전통문화교양강좌는 지난 3月 17日 故柳鐸一 前 院長의 「尖端科學時代의 自己確認」이란 강연을 始作으로 "傳統思想의 現代的 意義"라는 主題下에 기획과 일반강좌로 나누어 총 32回의 강연이 있었다.

한편 본 교양강좌는 내년 3月부터 또 다른 主題를 가지고 계속할 계획으로 있다.

▷ 第95次 理事會 開催

第95次 理事會가 지난 12月 8日 本院會館에서 開催되었다.

李圭衡 理事長과 金尙勳 院長 등 任員 14名이 參席한 가운데 열린 理事會에서는 2007年度 事業計劃 및 豫算(案)과 『退溪學論叢』 第12輯 發刊, 任員補選 등에 관한 議題가 論議되었고, 특히 이날 會議에서는 지난 1988年 創刊 때부터 사용해온 소식지의 題號인 「退溪學釜山消息」을 「退溪學釜山硏究院報」로 바꾸기로 議決하였다.

題號變更과 관련해서는 지난 7月 28日 가진 「退溪學釜山消息」 第91號 發行을 위한 編輯委員會(委員長 金泰詢)에서 題號를 바꾸기로 意見을 모으고, 理事會에서 正式議題로 다루어줄 것을 要請키로 한 바 있다.

▷ 李源鈞 副院長 基調講演

李源鈞 副院長 겸 尙德文化大學長이 지난 11月 13日 密陽文化院이 주관하고 密陽市가 후원한 제4회 佔畢齋 金宗直 先生 追慕 學術大會에서 「佔畢齋 金宗直이 文廟에 從祀되지 못한 原因」이란 論題로 基調講演을 하였다.

▷ 鄭泰守 會員 山淸郡 平和大賞 受賞

慶南 山淸郡의 2006年 平和大賞에 鄭泰守 會員이 選定되는 榮譽를 안았다.

山淸郡 平和賞 審査委員會는 地域社會 發展에 獻身해온 郡民을 對象으로 審査를 벌여 平和大賞 受賞者로 鄭 會員을 選定했다.

鄭會員은 지난 8年間 山淸文化院長으로 在任하면서 '山淸郡誌'를 編纂하는 등 地域文化暢達에

크게 寄與한 功勞를 認定받았다. (2006.10.4 釜山日報에서 拔萃)

▷ 李炳壽 理事 제5隨筆集 펴내

本院 李炳壽 理事가 다섯 번째 隨筆集 『느티나무처럼』을 펴냈다.

팔순을 맞아 유서 남기는 기분으로 5집을 발간하게 되었다고 간행사에서 밝히고 있는 이병수 이사는 "수필다운 수필을 쓰기가 어렵다는 것이 갈수록 절실해진다. 미흡하나마 후손들에게 한 선대(先代)의 사상 감정을 전하고, 독자들에게도 공감을 주는 글이 몇 편 있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본다" 고 적고 있다.(교음사 刊, 값 8,000원)

한편 李炳壽 理事의 八旬宴을 겸한 隨筆集 出版記念會가 지난 12월 21일 시청 동백홀에서 본연구원 임원을 비롯한 남명학부산연구원과 부산담수회 회원, 부산수필문학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 金兌桓 理事 Kbs-R 放送出演

本 硏究院 運營委員長인 金兌桓 理事가 지난 10월 5일(음 8월 14일) 오전 11시 방송된 〈라디오 정보센터 KBS부산 울산입니다.〉에 蓬山吟社의 이양구·서정민 회원과 함께 출연하였다.

秋夕連休 特輯으로 마련된 對談프로에서 金 理事는 秋夕名節에 꼭 지켜야할 道理로 名節에 故鄕을 찾는 것이 바로 孝의 實踐인 만큼 살아계시는 어른께 人事드림은 물론이고 祖上에 대한 茶禮와 더불어 山所에 省墓하고 또 이웃 어른과 親知들에게 인사하고 年歲 많은 어른들로부터 우리 傳統文化에 대한 말씀을 귀담아 들을 것을 强調하였다. 특히 우리의 美俗을 繼承하는 것은 책을 읽어 體得하는 方法도 있겠지만 年歲 높은 어른들의 體驗談을 들어서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되는 것이 名節을 뜻있게 보내는 捷徑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한문공부를 하는데 '講' 이란 무엇을 뜻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金 理事는 '講' 이란 字典에는 〈배운 글을 선생 앞에서 욈〉이라고 설명한 바와 같이 '전날 배운 것을 다음 날 아침에 선생 앞에서 소리 내어 읽어 외우는 것' 이라고 답하였다. 이날 講讀한 孝經의 제1장과 孟子 梁惠王章句의 첫 장은 다음과 같다.

■ 孝經

孔子謂曾子 曰 身體髮膚는 受之父母라 不敢毁傷이 孝之始也오 立身行道하고 揚名於後世하야 以顯父母 孝之終也라 夫孝난 始於事親이요 中於事君이요 終於立身이니라

공자께서 증자더러 말씀하시기를 신체의 모든 것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 결코 이를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요, 몸을 세우고 도를 행하여 후세에 이름을 떨침으로써 부모를 빛나게 하는 것이 효도의 끝이니라. 대저 효도라는 것은 부모를 섬기는 데서 시작하여 임금을 섬기는 것이 그 다음이며 몸을 세우는 것이 그 끝이니라.

■ 孟子 梁惠王章句

孟子 見梁惠王하신데 王曰叟 不遠千里而來하시니 亦將有以利吾國乎잇고

孟子 對曰王은 何必曰利잇고 亦有仁義而已矣니이다

王曰何以利吾國고하시면 大夫曰何以利吾家오하며 士庶人이 曰何以利吾身고하야 上下 交征利면 而國이 危矣리이다 萬乘之國에 弑其君者는

必千乘之家요 千乘之國에 弑其君者는 必百乘之家니 萬取千焉하며 千取百焉이 不爲不多矣언마는 苟爲後義而先利면 不奪하야는 不饜이니이다

未有仁而遺其親者也며 未有義而後其君者也니이다

王은 亦曰仁義而已矣시니 何必曰利잇고.

맹자께서 양혜왕을 뵈오니

왕께서 말하되 첨지(노인의 경칭)께서 천리 길을 멀리 여기지 않고 오셨으니 또한 장차 내 나라를 이롭게 함이 있겠습니까?

맹자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왕은 하필 利(이)를 말씀하십니까, 또한 仁義(인의)가 있을 뿐입니다.

왕께서 어떻게 하면 내 나라를 이롭게 할까 하시면 대부들은 어떻게 하면 내 집안을 이롭게 할까 하며 士(사)와 庶人(서인)들은 어떻게 하면 내 몸을 이롭게 할까 하여 위와 아래가 서로 利(이)를 취하기를 다투면 나라가 위태로울 것입니다. 만승의 나라에 그 君主(군주)를 시해하는 사람은 반드시 천승을 가진 사람의 집안이요 천승의 나라에 그 군주를 시해하는 사람은 반드시 백승을 가진 사람의 집안이니 만승이 천승을 취하며 천승이 백승을 취함이 많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만약 義(의)를 뒤로 하고 利(이)를 먼저 하면 빼앗지(모두) 않으면 만족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질고서 그 어버이를 버리는 사람은 있지 않으며 의로운 사람으로서 그 군주를 뒤로 하는 사람은 있지 않습니다.

왕께서는 또한 仁義(인의)를 말씀하실 따름이니 하필 利(이)를 말씀하십니까?

▷ 『退溪學釜山硏究院報』로 題號變更

지난 1988年 創刊된 『退溪學釜山消息』이 본지 편집위원회에서 發議함에 따라 제95차 이사회에서 정식의제로 論議되어 제호를 『退溪學釜山硏究院報』로 바꾸게 되었다.

한편 제92호부터 사용되는 새 題號는 李 燮 부원장이 썼다.

김종직 연구소 생긴다

부산대 밀양캠퍼스 향토사 연구 등 계획

경남 밀양 출신 유학자인 점필재 김종직(1431~1492) 선생을 연구하는 대학 연구소가 설립된다.

6일 부산대에 따르면 조선시대 유학자인 김종직 선생의 이념과 정신을 연구하기 위해 '점필재연구소' 설립 규정안을 만들고 12월 중순까지 밀양시 삼랑진읍 용성리 밀양캠퍼스 내에 연구소 사무실을 개소할 예정이다.

부산대는 지난해 밀양대 통합을 계기로 밀양지역 향토사 연구와 인문학 발전을 위해 김종직 선생의 사상을 연구하는 연구소를 설립하게 됐다.

부산대는 이를 위해 지난달 점필재연구소 설립 준비위원회(위원장 정출헌 한문학과 교수)를 발족하고 연구소 설립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연구소는 김종직 선생과 그 제자들이 기록해 놓은 영남사림파 문집을 수집,번역하는 것을 비롯해 밀양지역 전통문화를 발굴하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인문학의 저변 확대를 위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문고전아카데미 등도 개설할 방침이다.

정 위원장은 "밀양지역에는 김종직 선생 생가와 문집 등 전통과 문화가 많이 남아 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조사한 사례가 적었다"면서 "부산대 밀양캠퍼스를 거점으로 밀양지역 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직 선생은 세조 5년(1459)에 문과에 급제하고 형조판서를 지냈으며 정몽주,길재 등이 수립한 학문을 계승해 수많은 후학을 양성해 조선시대 사림의 종사로 추앙됐던 인물이다.

김길수기자 kks66@

〈2006. 11. 1日字 부산일보에서 轉載〉

♣ 新入會員 紹介 ♣

◆ **鄭然雨** 草溪 38年 戊寅 牛耕
경남 거창군 위천면
부산시 부산진구 초읍동
선경@ 4-302
051)809-2363

◆ **安和相** 順興 39年 己卯
경남 합천군 율곡면 낙민리 1053
부산시 금정구 청룡동 142-10
네오밸리스 302호
051)508-6057

◆ **李永甲** 泗川 63年 癸卯
경남 사천시 정동면 소곡리 679
부산시 연제구 연산9동
연산엘지아파트 118동 1702호
051)911-6161(직)

◆ **裵政一** 星州 37年 丁丑 靑谷
대구시 달성군 옥포면 교항리
부산시 중구 부평동 4가 8번지
051)245-7952, 011-862-7952

퇴계학 - 율곡학
주자학이다 vs 아니다

5년 논쟁… 조선 성리학 연구에 새 장

'오늘의 동양사상' 참여학자 9명의 쟁론 결산

퇴계학과 율곡학은 주자학인가.

어찌 보면 의문의 여지가 없는 이 질문을 둘러싸고 한국 철학계에서 5년여에 걸쳐 학술논쟁이 펼쳐졌다면 믿을 수 있을까. 동양철학 학술지인 '오늘의 동양사상' 15호는 그동안 주자학의 적통 내지 아류로 인식돼 온 퇴계학과 율곡학의 고정관념에 대한 논쟁을 일단락 짓는 글을 실었다. 김기주(계명대 강사) 박사가 정리한 이 글은 9명의 소장 학자가 참여한 16편의 쟁론을 소개하고 그 성과와 한계를 정리했다.

이 논쟁은 이상익 영산대 교수가 2000년 정원재 현 서울대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지각설에 입각한 이이 철학의 해석'의 내용을 비판하고 이를 반박하는 정 교수의 글이 '오늘의 동양사상'에 나란히 실리면서 시작됐다.

정 교수의 논문은 율곡 이이의 학문에 나타난 지각설(知覺說)에 근거해 율곡의 학문이 주자학보다는 호상학(호남학)을 계승한다고 주장했다. 호상학은 남송시대 후난(湖南) 성 악록서원을 중심으로 활약한 호안국·호인·호굉 부자가 전개한 학설로 성선설 성악설을 부인하고 이(理)와 기(氣)를 본체와 현상으로 이원화했다. 또 마음이 사물에 이미 감촉된 상태인 이발(已發)을 중시해 마음이 사물에 감촉되지 않은 미발(未發)까지 포괄했던 주자학과 차별된다.

그러나 이상익 교수는 율곡학이 주자학과 차별성을 지니고 있지만 △성선설에 대립하지 않았고 △이와 기를 본체와 현상으로 이원화하지 않았고 △이발과 미발을 함께 중시했다는 점에서 호상학과 계승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후 이 논쟁은 다른 학자들의 참여로 확대되다 "이이가 퇴계 이황보다 더 주자에 가깝다"는 홍원식 계명대 교수의 발표문을 기점으로 퇴계학 성격논쟁으로 발전했다. 홍 교수는 퇴계학이 자연과 인간사회의 보편 질서로서 이(理) 중심의 주자학을 도덕 인식적인 심(心) 중심의 철학으로 발전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손영식 울산대 교수가 퇴계학은 세계를 이(理) 중심으로 해석한다는 점에서 주자학을 계승했고, 율곡학은 세계를 기(氣) 중심으로 해석한다는 점에서 호상학을 계승했다는 반론을 제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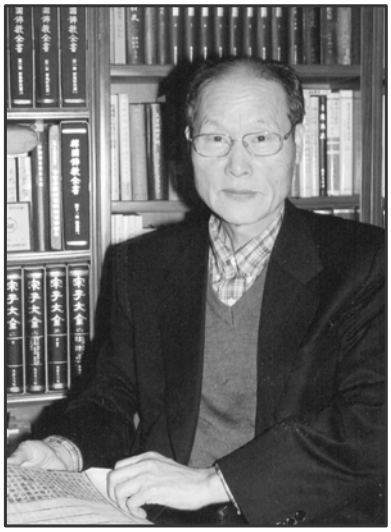
김기주 박사는 퇴계학이나 율곡학이 비(非)주자학이라는 주장을 제기한 이들 논쟁을 통해 이들 학문의 탈(脫)주자학적 성격이 새롭게 조명됨으로써 조선 성리학 연구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권재현 기자 confetti@donga.com

〈2006. 12. 19日字 동아일보에서 轉載〉

「特輯」

前院長 故 湯民 柳鐸一博士 逝去



柳鐸一 前 院長이 지난 11月 18日 宿患으로 別世하였다.

柳院長은 本 硏究院 創立 첫 해인 1982年 入會한 이래 本 硏究院 發展에 크게 寄與해 왔을 뿐 아니라, 특히 지난 2002年부터 4年間 本 硏究院 院長으로 在任하는 동안에는 敎養漢文講座의 開設을 비롯, 家庭敎育特講, 傳統文化特講 등의 講座를 開設하여 本會 會員과 一般市民들로부터 큰 呼應을 얻었고, 韓·日·中 退溪學國際學會를 名實相符한 學術大會로 格上시켜 나가는데 이바지 하는 등 硏究院 發展에 큰 足跡을 남겼다.

한편 退溪學釜山硏究院葬으로 치러진 襄禮는 20일 오후 4시에 開座하여 金兌桓 理事의 사회로 진행되었는데 金泰詢 編輯委員長이 故人의 履歷을 소개하였고 이어서 葬禮委員長 金尙勳 院長, 相禮 權五崇 副院長, 護喪 李圭衡 理事長, 讀祝 李源鈞 副院長, 寫銘旌 李 燮 副院長, 讀祭文 金兌桓 理事, 李相熙 理事, 申載奎 運營委員 등을 執事分定하였다.

이후 致奠儀式에서는 金尙勳 院長의 弔辭를 始作으로 鄭景柱, 金秉權, 박홍길, 하영삼 교수 등 故人의 弟子와 同僚敎授의 弔辭가 이어졌다.

葬禮日인 21일에는 卯時에 發靷祭를 지내고 이어서 30여년간 故人이 몸담았던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국문학과 앞뜰에서 路祭를 마친 후 고향인 安東市 臨東面 高川洞 於仕山 丁坐 癸向에 安葬하였다.

■ 文學博士 湯民 先生의 履歷

先生께서는 1971년 부산대 교수로 임용되신 이후 2000년 2월 정년퇴임 때까지 30년간 후학을 양성하셨으며, 11권의 저서와 80여 편의 논문, 후학들을 위한 연구자료집 60여 권을 통해 인문학의 기초가 되는 한국 문헌학의 체계와 이론을 정립하는 데 외길을 걸어오신 큰 학자셨습니다.

문헌에 대한 체계적 지식이 정립되지 않은 황무지를 개척하고 학문 연구 대상으로서 문헌학을 수립하기 위해 내놓은 첫 저서는 '완판방각소설의 문헌학적 연구'(1981)였습니다. 이 저서는 국문학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문헌학 분야를 최초로 정립한 저술이며, 1983년 학계의 최고 권위인 제7회 도남 국문학상을 수상하셨다. 그리고 국문학연구의 기초가 되는 문헌적 주제에 대하여 발표한 논문을 문헌학의 체계에 따라 재구성한 '한국문헌학연구'(1989)를 출간하셨고 이 실증적 연구의 성과로 1995년에는 학술부문 부산시 문화상을 수상하셨다. 뿐만 아니라 제1회 효원학술상(1999), 제4회 일맥문화상(2001)을 수상하셨고, 2006년에는 부산대 개교 60주년을 맞이하여 부산대를 빛낸 인물로 선정되셨습니다.

그리고 선생께서는 국문학 연구의 기초가 되는 문헌학과 관련된 출판문화나 지성사 연구도 동시에 진행하셨습니다. 그 성과로 '한국고소설비평자료집성'(1994), '성호학맥 문집간행연구'(2000), '영남지방출판문화론고'(2001) 등의 저서가 있습니다.

선생께서는 정년을 맞아 노후를 즐기는 것과는 달리 퇴임 후에도 학문과 교육을 위해 왕성하게 활동하셨습니다. 댁 가까운 곳에 서재인 '탕민서소'를 마련하여 강단에 있으면서 미처 하지 못한 저서 활동을 계속하셨으며, 알음알음으로 찾아오는 후학들이나 일반 시민들에게 학문을 전수하기도 하셨습니다. 특히 '실용 고문헌 감식법' 특강을 매주 개최하심으로써 문헌학의 대중적 전파에 헌신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려 16년에 걸쳐 조선왕조실록에서 36책 분량의 방대한 기본 자료를 정리해 놓고서도 건강 때문에 끝내 이루지 못한 '한중일 서적교류사'가 있고, 미출간 저서인 '국어국문학논고', '주자서절요의 찬술 유통과 문헌주석학적 학풍', '한국문화산고' 등이 있습니다.

선생께서는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학장, 부산대학교 중앙도서관장,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소장 등 학내 보직을 두루 지냈고, 한국문학회 회장, 한국고소설학회 회장 등의 학회 임원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특히 2002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퇴계학부산연구원 원장을 맡아서는 매주 '가정교육특강', '전통문화특강' 등을 무료로 개최함으로써 시민의 눈높이에서 퇴계학을 대중화하고 부산 시민의 문화 의식을 창달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선생께서는 平生의 伴侶로서 糟糠을 함께하신 李晋淑 여사와의 슬하에 준필(성균관대 동아시아 학술원, 연구교수), 준범(국사편찬위원회 연구사), 준경(성신여대 한문교육과 교수) 세 아들을 두셨다. 이들은 모두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준비 중에 있으며, 학자로서의 탄탄한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세 子婦들도 모두 국학계의 석학으로서 학술과 교육 일선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두 손자와 손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金秉權(부산대 국어교육과 교수), 鄭景柱(경성대 한문학과 교수), 曾天富(대만 정치대 한국어과 교수), 河岡震(동서대 미디어창작과 교수), 천정국(부산시교육청 장학관 · 정책과장) 등 수많은 제자를 양성하셨고, 이들은 선생의 경해를 접해 학문과 교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선생께서는 학문과 교육의 발전을 위한 왕성한 활동과 赫赫한 업적을 남기시고 平和와 安息의 나라로 永眠하셨습니다.

• 주요경력

부산대학교 졸업
데레사 여고 교사
부산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1971.9~2000.2)
부산대학교 도서관장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학장(1991) 겸 연수원장
부산 경남 문화재 감정위원, 부산의 길 명칭 심의위원
부산대학교 명예교수(2000)

• 주요 저서

완판방각소설의 문헌학적 연구(1981)
한국문헌학연구(1989)
한국고소설비평자료집성(1994)
성호학맥의 문집간행연구(2000)
영남지방출판문화론고(2001)
등 11권

• 주요 논문

『훈몽자회』 판목에 대하여(1962) 외 90여 편

• 학회 활동

한국 문학회 회장
한국 고소설학회 회장
퇴계학부산연구원 원장(2002~2006)
한국서지학회 이사 등 역임

• 수상

제7회 도남국문학상(1983)
부산시 문화상 '학술 부문'(1995)
제1회 효원학술상(1999)
제4회 일맥문화상(2001)
대한민국 녹조근정훈장(2000)

弔 辭

- 湯民 柳鐸一 先生님 靈前에 바치는 글 -

先生님!

湯民 先生님!

선생님이 棄世하셨다는 消息을 18일 아침 출근길에 전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宿患으로 고생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처럼 忽忽히 떠나실 줄은 미쳐 알 수가 없었습니다.

生老病死와 會者定離가 인간에게 주어진 宿命的인 狀況이라고는 하지만 선생님과의 永訣이 이처럼 큰 충격과 슬픔으로 와 닿을 줄은 몰랐습니다.

아직 起動도 하시고 가끔 나들이도 하신다고 하니 몇 년 정도는 더 사시지 않겠나 하는 漠然한 기대가 미련하고 愚鈍했음을 새삼 切感하면서 幽明을 달리하기 전에 왜 한번이라도 더 찾아뵙지 못했을까하는 後悔와 안타까움과 悚懼스러움이 가슴을 메이게 합니다.

湯民 柳鐸一 先生님!

선생님은 우리시대가 낳은 뛰어난 학자요 교육자였습니다. 일찍 부산대학교 문리과대학 국문과를 졸업하시고(1963년), 동아대학교 대학원 국문과에서(1971년 2월, 1981년 2월) 석·박사학위를 領得하신 뒤 1971년 9월부터 2000년 2월까지 자그마치 30여년을 모교 부산대학교에서 학문을 硏鑽 蘊蓄하시며 후학들의 敎諭에 盡力해 오셨습니다.

선생님은 文獻學을 비롯 국문학, 국어학, 국학, 한학에 이르기까지 넓고 깊은 학문적 영역을 개척해 오셨으며 특히 퇴계학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功業을 쌓았습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많은 危機상황에 逢着해 있습니다. 곳곳에서 가치관의 混淆와 顚倒현상이 목격되고 있고, 인간성은 荒廢일로에 있으며 倫理觀과 道德律은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현실의 모든 不義와 不條理에서 나라와 겨레를 匡救하는데도 誠과 敬으로 요약되는 퇴계사상을 오늘에 되살리는 길밖에 없다는 信念으로 퇴계사상을 연구하고 그것을 實踐的 行動으로 옮기는데 앞장서 오셨습니다.

湯民 柳鐸一 先生님!

선생님의 높은 학문적 업적 가운데 특기할 것은 역시 文獻學에 대한 獨步的 연구라고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우리나라 文獻學의 泰斗로까지 평가받고 있습니다.

(完版) 方刻小說의 文獻學的 硏究, 韓國古代小說 批評資料集成, 星湖學派의 文獻刊行硏究, 嶺南地方出版文化論考 등을 上梓, 우리나라 文獻學의 基礎를 굳건하게 다져놓았으며, 특히 人文學의 基礎資料集 60冊을 제자들에게 提供한 점은 높이 평가되고 길이 稱頌되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남학술상, 효원학술상, 부산시 문화상, 대한민국 녹조근정훈장, 부산대학을 빛낸 인물상 등을 비롯한 많은 상훈과, 문화재청 동산문화재 감정위원, 국립중앙도서관 고서위원, 부산·경남문화재위원, 한국문학회 회장, 한국고소설학회 회장, 퇴계학부산연구원 원장 등의 경력 등이 그것을 입증하고도 남는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학문을 통한 2世교육은 물론 人間的 感化와 人格的 高潔함으로 후학들을 訓導해 오신 人師, 곧 참 스승이었습니다.

선생님과 같은 뛰어난 학자

선생님과 같은 훌륭한 교육자

선생님과 같은 高邁한 인격자를 잃는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슬픔을 넘어 국가적으로도 커다란 손실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은 매우 誠實하신 분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매우 謙虛하신 분이었습니다.

선생님은 儉素하고 質朴하신 분이었습니다.

선생님은 眞率하고 直純하신 분이었습니다.

선생님은 淸廉하고 醇厚하신 분이었습니다.

理解와 寬容의 넓은 품을 갖고 계시면서도, 原理와 原則에는 嚴格하신 外柔內剛한 분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의 奧義와 인정의 曲盡함을 앎으로서 누구에게나 多情多感하시고 자상한 분이었습니다. 外叔父이셨던 故 李相憲 박사님, 姑母님이신 李華眞 여사님, 사형간인 徐在克 박사님까지도 잘 알고 있는 저는 오래전부터 여러 사람을 통해 學德을 兼全하고 계신 선생님의 高名하심을 잘 듣고 있었는데, 막상 선생님이 心血을 기울여 운영하시던 退溪學釜山硏究院의 院長職을 인계 받고 보니 선생님과 저는 宿命的으로 現世만에 局限되지 않는 깊은 因緣이 있었는가 싶습니다.

선생님 "죽음은 삶의 또 하나 樣式"이란 말이 있는가 하면 "죽음은 새로운 세계의 시작" 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또한 佛家에서는 不生不滅, 無始無終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선생님은 이 세상을 떠나셔도 선생님이 남기신 학문적 업적은 영원히 살아서 빛날 것이며, 선생님이 남기신 人間的 香氣 또한 날이 갈수록 더욱 높아갈 것입니다.

先生님!

선생님이 못다 하신 일은 사모님과 遺子女들, 그리고 많은 後學과 弟子들이 선생님의 遺志를 받들어 하나하나 이룩해 낼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뿌리로 돌아가는 歸根의 계절이요, 歸心의 계절입니다. 또한 모든 푸나무들이 凋落을 재촉받는 別離의 계절이요 終命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선생님 大宇宙에 정녕 輪廻가 있다면 靑山의 如如한 氣脈을 입고 참된 선비, 참된 스승으로 다시 한 번 우리 앞에 臨하소서!

그리하여 永遠不滅의 몸으로 立像하소서!

선생님!

湯民 柳鐸一 先生님!

冥界로 가는 길 부디 꽃길처럼 아름답고, 太虛淸明한 새 세상에서도 마음껏 淸福을 누리옵소서!

2006. 11. 20

退溪學釜山硏究院 院長 金 尙 勳 삼가 올림.

挽湯民全州柳公

在世弟 驪州 李圭衡

至純稟性玉如心　지순한 품성으로 마음은 옥과 같은데
忽也蘭音直到今　홀연히 부음이 여기 이르렀네.
端雅淸姿人共仰　단아하고 온아한 맑은 모습 모두가 우러러 보며
和柔儀表世俱欽　유순한 의표는 모두가 공경하네.
退溪學問宣揚切　퇴계학을 널리 선양함은 간절하였고
黌舍聖經考究深　성인의 경전을 깊이 상고하여 연구하였네.
後此幽明相永隔　이로부터 이승과 저승이 서로 다르니
含悲薤露淚盈衿　슬픔을 머금고 상여소리에 눈물 적시네.

挽湯民全州柳公

在世弟 安東 權五崇

標儀溫雅性仁賢　표의는 온아하고 성품은 착하고 어진데
志操淸閑孝友全　지조는 맑고 한가하며 효성과 우애는 온전하였네.
學脈名聲垂後範　학문의 맥과 명성은 후배에게 모범되고
文風履歷是眞詮　문학의 기풍과 이력은 참되네.
恒存心性貧而樂　항상의 마음과 뜻은 가난함도 즐기고
能著詩書富又篇　능히 지은 시서는 많은 책에 남기셨네.
一夜蘭音何忽急　하룻밤 사이의 부음은 이토록 급하니
堪嗟吾輩淚連漣　슬픔은 참는 우리들 눈물 이어지네.

輓湯民柳鐸一博士

在世弟 載寧 李　燮

湯民愷悌得之天　湯民의 단아한 기상은 천부의 품성
講述平生智欲圓　평생동안 강술에 막힘없는 슬기였다.
接物溫恭修懿德　온공으로 사람을 대하여 아름다운 덕 닦았고
持身謙讓倣儒賢　겸양한 몸가짐은 유현을 본받았네.
學求典籍心神豁　고전을 공부하니 마음이 광활하고
樂付黌堂性命全　육영에 낙을 부쳐 천성을 다하였네.
何事一朝千古隔　어찌하여 하루아침에(홀연히) 이 세상 하직인가
萬懷傷感淚滂然　만 가지 회포에 마음이 슬퍼 하염없는 눈물이라.

輓湯民柳鐸一博士

在世弟 載寧 李相熙

天姿端雅玉如人　천부의 단아한 모습 玉人과 같아
處世恭謙接物仁　공겸으로 처세하고 대인이 어질었네.
誨育英才爲道樂　영재교육 도락 삼고
尊崇儒術保天眞　유술을 존숭하여 천진을 보존했다.
究攻禮樂修高德　예악의 깊은 연구 높은 덕 닦았으며
耽讀經書遠俗塵　경서를 탐독하여 세속풍진 멀리했다.
忽報蘭音千古隔　홀연히 날아온 부음 영원한 이별인가
靈前不覺淚霑巾　영전에 엎드리니 끝없는 눈물 수건을 적시네.

挽湯民柳鐸一博士

在世弟 瑞興 金兌桓 痛哭挽

湯友孜孜七十春　존경하는 벗 탕민 70년간 부지런하고 부지런하여
恢恢事業總由眞　넓고 큰 사업들 모두 참 되었네.
治家律己人當範　집 다스리고 몸가짐이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었으며
繼往開來孰與倫　앞 스승 이어 후배 가르침을 누가 더불어 짝할 수 있으랴.
碩學名聲難得伴　큰 학자의 명성 그 류를 찾기 어려우며
華門風韻更輝新　빛나는 가문 풍운 새롭게 빛냄을 더하였네.
嗚呼一夜奎星晦　아 슬프다 하룻밤 사이에 문성이 어두워졌구나.
痛哭靈前淚滿巾　영령 앞에 통곡하니 눈물만 흐르는구나.

挽湯民柳鐸一挽

在世弟 平山 申載奎 哭挽

以情交友幾經春　정으로서 사귄 벗이 몇 년을 지났던가
忽報蘭音未禁唇　홀연히 전하는 난음 놀람을 금치 못하였네.
勉勵誨人先好學　힘을 다해 가르침에 앞서 학문을 좋아하고
誠勤修己自除塵　정성들여 수양함이 티끌을 제거했네.
崇儒素潔居眞世　선비의 소박함이 진실되게 살았고
接物溫和作善隣　사물에 대한 온화함에 좋은 이웃 맺었도다.
端雅標儀誰可效　단아한 용의를 뉘라서 본받을꼬
不堪痛惜淚霑中　아픈 마음 견디다 못해 흐르는 눈물 수건적시네.

"매화에 물을 주라" 퇴계 이황의 유언

퇴계는 평생 140여회의 벼슬이 내려졌어도 70여회를 병이나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했다. 단적인 예로 1566년 7월, 명종임금이 기대하는 뜻이 간절한데도 퇴계가 오지 않자 독서당 신하들에게 '현인을 불러도 오지 않는다'(招賢不至歎)라는 제목으로 시를 짓게 하고, 화공에게는 '도산도'를 그려 송인으로 하여금 '도산기'와 '도산잡영'을 써서 병풍을 만들게 했을 정도다. 퇴계가 이렇게 출사를 거절한 실제 이유는 학문의 목적을 출세가 아닌 자기수양에 두었기 때문이다.

퇴계의 생애 가운데 50, 60대 도학자로서의 역정을 저술 중심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53세 때 '천명도설후서·부도'를 지은 것을 시작으로 '주자서절요' '계몽전의' '자성록' '고경중마방' '송계원명이학통록' '심무체용변' '심경후론' '전습록변' '성학십도' 등 무수히 많다. 이 중 '이기호발설'을 중심으로 하는 주리적 정통론은 '주자서절요' '사단칠정논변'을 통해 확립되었고, 거경궁리로 요약되는 퇴계 도학에서 심학의 문제는 '심경후론'과 '성학십도'에 집약되었다. 퇴계는 이들 저술을 통하여 성리설·예학·수양론·의리론 등에서 조선시대 도학 이념의 여러 기본영역을 확고히 정립하고 심화시켰던 것이다. 요컨대 평생 거경(居敬)과 궁리(窮理)로 일관한 퇴계의 생애와 학문은 스스로 지은 '묘갈명'에서 '학문은 구할수록 멀기만 하고 벼슬은 사양할수록 몸에 얽히네'라고 고백한 데서 짐작할 수 있다.

퇴계 이황의 묘비. 경북 안동시 예안면 건지산 소재.

하지만 실천궁행으로 역사에 사표가 된 퇴계의 참모습은 최후의 순간에 더욱 빛이 난다. 퇴계가 70세를 일기로 작고하던 해인 1570년 12월4일, 조카 영에게 받아쓰게 한 유언장은 국장(國葬)을 치르지도 말고, 값비싼 유밀과(油蜜果)는 물론 비석도 쓰지 말고, 작은 돌에다 앞면에는 단지 '退陶晩隱眞城李公之墓'(퇴도 만은 진성이공지묘·사진)라 쓰게 할 정도로 극도로 간소하다.

같은 날 제자들에게 '평소 그릇된 견해를 가지고 종일토록 강론한 것 또한 쉬운 일은 아니었다'고 술회하고, 7일, 제자 이덕홍에게 서적을 맡게 하였다. 그리고 8일 아침에 '매화 화분에 물을 주라'고 명하고는 유시(酉時, 오후 5~7시)초에 누운 자리를 정돈하게 하고는 부축받고 일어나 앉아서 편안하게 서거하였다.

〈2006. 9. 16日字 경향신문에서 轉載〉

▶ 新年賀禮會 開催

2007년도 新年賀禮會가 오는 1월 8일 오후 3시 부산적십자회관 6층 제3회의실에서 개최된다.

본연구원과 부산담수회, 박약회 부산지회가 공동 주최하고 부산담수회가 주관할 신년하례회에서는 본원 金尙勳 院長이 記念講演을 할 예정이다.

編輯後記

○ … 나라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丙戌年이었습니다. 多事多難이야 언젠들 아니겠습니까만 今年은 우리 退溪學釜山硏究院의 어른 여러분이 下世하시어 哀感을 가눌 길 없습니다. 오랜동안 癌鬪病中에도 웃음을 잃지 않으시던 湯民先生께서 11월 18일 끝내 下世하신 悲報를 접했고 疏略하나마 硏究院葬으로 先生의 故鄕 安東 臨東面 高川洞 於仕山(어신골)에 永眠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合掌, 冥福을 빕니다.

○ … 「湯民 柳鐸一 博士 逝去」를 特輯하였습니다. 힘이 모자란 탓에 禮를 다 갖추지 못한 바가 어찌 없겠습니까?

○ …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消息誌라는 이름이 硏究院報로 바뀌었습니다. 읽히는 院報, 多樣하게 많이 담는 院報를 만들려고 애쓰겠습니다. 더욱 채찍질하고 사랑해 주십시오. 季刊誌로서의 義務를 다한 것으로 自慰해 봅니다.〈編輯長 金泰詢〉

發 祝 展

永友出版印刷社

代表 金 基 承

釜山廣域市 釜山鎭區 釜田2洞 532-43番地

電 話：051-806-7654番
051-806-7653番
F A X：051-807-7654番
휴대폰：011-886-8100番
E-mail：ywpr2001@yahoo.co.kr
webhard.co.kr/ID：nonmun21

영업종목

- 카다로그
- 고급칼라인쇄
- 개업인사장
- 브로슈어
- 책자인쇄
- 연하장
- 팜플렛
- 마스터인쇄
- 청첩장